#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제주도의 영등할망 · 선문대할망

송 화 섭*

<차 례>

Ⅰ. 서론
Ⅱ. 환태평양과 동아시아 해류
Ⅲ. 인도차이나의 밀교문화와 해양신앙
Ⅳ.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한반도 해양신앙
  1. 중국 보타낙가산의 해양신앙
  2. 한반도의 해양신앙과 할미신
Ⅴ. 제주도의 영등할망 · 설문대할망과 관음신앙
  1. 영등할망과 관음신앙
  2. 선문대할망과 관음신앙
Ⅵ. 결론

**국문요약**

한반도와 제주도는 쿠로시오 해류권에 속해 있다. 쿠로시오 해류는 넓게는 북태평양 환류에 속하고, 좁게는 동남아시아 해류이다. 쿠로시오 해류의 진로는 동남아시아 적도 부근에서 인도차이나 해역을 경유하여 북상하면서 오끼나와, 일본 열도, 한반도 남단의 해역을 통과하여 오오츠크해의 해류를 만나면서 다시 북태평양 해류에 합류한다. 이와 같이 북태평양 해류는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환류(還流)하고 있다. 이러한 북태평양 환류속에서 쿠로시오 해류는 수시로 동남아시아 문화를 전파시키고, 항해자 및 표류민들이 한반도, 제주도로 올라올

* 전주대 교수

수 있는 견인(牽引)역할을 하였다. 한마디로 쿠로시오 해류는 동아시아 해양실크로드라 할 수 있다. 이 해양실크로드를 따라 인도에서 인도차이나 해안을 따라 인도종교가 전파되어 오고, 인도차이나 해양신앙이 한반도에 전파되어 온 것이다. 인도종교는 힌두교와 불교가 결합된 밀교(密敎)를 말하는데, 이러한 밀교의 관음(觀音)신앙이 해양신앙으로 인도차이나 해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해상안전을 돌보는 관음보살이 인도 포탈라카(Potalaka)에서 바닷길 따라 북상하여 중국 주산군도에 보타산 낙가산(普陀山洛迦山)에 관음성지를 조성시켜 인도의 관음신앙을 이식시켰다. 중국 절강성의 도서인 주산군도 普陀洛迦山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관음성지(觀音聖地)로 알려졌으며, 이 곳의 관음신앙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었다. 보타산에서 사단항로를 타고 한반도 변산반도에 이르기도 하고, 남해안 항로를 따라 제주도에 이르기도 한다. 특히 송대 초에 중국과 한국의 해양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제주도 서귀포에는 법화사라는 사찰이 있었다. 서귀포는 해상교통의 중간기항지 역할을 하였으며, 법화사는 항해안전을 기원하는 관음도량이었다. 제주도의 영등할망과 선문대할망도 관음보살의 화신이며, 고려시대에 제주도에 정착한 이후 민간신앙화하면서 다양한 설화들과 복합적으로 얽히며 오늘의 영등할망과 선문대할망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영등할망과 선문대할망은 인도에서 중국 강남지역을 경유하여 한반도의 제주도까지 연결된 관음보살의 화신이 본질이라 하겠다.

주제어 : 북태평양, 관음신앙, 보타낙가산, 밀교, 해양신앙, 제주도

## Ⅰ. 서론

동아시아의 해양문화는 북태평양의 해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태평양의 해류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에서 환류하면서 동아시아해류를 만든다. 동아시아의 해류는 쿠로시오 해류이며, 한반도는 그 영향권에 있다. 쿠로시오 해류는 필리핀 남서쪽에서 북적도 해류와 연결되면

서 동아시아 대륙의 동해안을 따라 올라온다. 쿠로시오 해류는 북상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중국 복건성 · 광동성 · 절강성 등 동아시아 대륙을 경유하여 일본 오끼나와, 규슈를 거쳐 제주도, 한반도와 연결되는 해로를 타고 올라온다.

쿠로시오 해류는 오끼나와 부근에서 일본 열도 아래쪽으로 향하는 해류와 한반도로 올라오는 해류로 분기하고, 한반도로 향하는 해류는 다시 제주도 남단의 해역에서 동한 해류와 서해 해류로 분기하여 한반도 남서 및 남동 방향으로 올라간다. 해류는 해로를 만들고 해로는 항해자들이 문화를 실어 나르는 수송로다. 그리하여 바다가 삼면인 한반도에는 쿠로시오 난류에 편승하여 올라온 동남아시아 계통의 남방계 문화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항상 쿠로시오 해류의 문화적 영향을 직접 받는 곳이다. 제주도가 항상 태풍의 진로 권역에 있으면서도 문화의 계통을 대륙과 몽골에 잇대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한반도는 동남아시아 해역의 해류문화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바닷길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려는 선문대할망과 영등할망도 쿠로시오 해류의 바닷길을 통해서 제주도에 올라온 문화로서 동남아시아의 해양신앙과 연결시켜 살펴보려 한다. 그동안 제주도가 섬이면서도 해류와 해로를 통해서 제주문화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 특히 제주도의 선문대할망을 창세신화로 한정하여 보려고 했던 것도 그런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영등할망과 선문대할망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제주도에 올라온 관음의 화신이라는 관점에서 제주도의 해양신앙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 Ⅱ. 환태평양과 동아시아 해류

환태평양은 북태평양과 남태평양을 모두 아우르는 뜻도 있지만, 태평양을 환류하는 해류이동을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태평양의 해류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흐르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천천히 순환하는 해양 환류체계를 갖고 있다. 북태평양의 환류는 쿠로시오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가 바닷바람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환류가 형성된다.[1] 환류는 편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북태평양 해류는 북동풍에 밀려 서쪽으로 흐르는 북적도 해류가 아시아 대륙의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온다. 태평양에서 북적도 해류는 파나마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장장 14,000km의 여정을 장애물도 없이 흐르다가 아시아 군도와 일본 열도의 장애물을 만나면서 동아시아 앞바다의 대륙붕을 따라 북쪽으로 휘어져 올라가다가 오호츠크해와 베링해로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한류를 만나 아메리카 쪽으로 흘러가 캘리포니아 해류가 된다. 캘리포니아 해류는 다시 적도에 이르러 북적도 해류가 되어 환류하게 된다.[2] 북적도 해류는 동아시아의 크고 작은 섬을 헤치며 아시아 대륙붕따라 북상하여 쿠로시오 해류가 된다. 쿠로시오 해류는 동아시아 해역의 수많은 군도와 일본열도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북적도 해류는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오른쪽으로 북상하면서 쿠로시오 해류로 편승하여 동아시아 해류가 된다. 쿠로시오 해류는 짙은 청색을 띤 해류라 흑조(黑潮)라 부른다. 쿠로시오 해류는 시계 방향으로 북상하면서 일본열도를 거쳐서 북위 50도 근처에서 편서풍에 밀려서 다시 동쪽으로 흘러가 북태평양 해류로 바뀐다.

---

1) DK『바다』편집위원회,『바다』, 사이언스북스, 2008, 58쪽.

2) 레이첼카슨,『우리를 둘러 싼 바다』, 이충호 옮김, 양철북, 2003, 205쪽.

〈그림 1 쿠로시오해류도〉

이러한 북태평양의 환류체계에서 볼 때, 동아시아 해역에서 쿠로시오 해류가 미치는 해역은 한정적이고 영향을 받는 범위가 좁다. 쿠로시오 해류가 영향을 미치는 해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강남지역과 대만, 오끼나와 및 일본열도, 한반도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해역에 들어온 쿠로시오 지류는 제주도 남쪽 해역에서 남동쪽으로 흘러 쓰시마 해협을 통과하면서 동해로 흘러가기도 하고, 서해안으로 따라 올라갔다가 되돌아 나오기도 한다. 남동해안으로 올라간 동한난류는 베링 해협에서 불어오는 리만한류와 만나 동해에서 환류 체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서해안에서도 서해난류의 환류체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환류가 기상조건에 따라 항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와 같이 한반도 해역에서 환류 현상은 항해와 표류 기록에 나타난다.

항해 기록은 1123년에 고려에 온 송의 사신 서긍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의 항해일지에 나타나고, 표류 기록은 『탐라문견록』『표해록』을 들 수 있다. 서긍은 절강성 주산군도 정해현에서 출항하여 사단항로를 타고 한반도 서해를 항해한 일지를 기록으로 남겼고, 『탐라문견록』은 1731년에 정운경이 제주도 사람들의 표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인데, 제주도 해역에서 표류하여 안남국, 오끼나와, 대만, 필리핀 등지를 다녀온 표류민의 이야기를 엮은 내용이다. 『표해록』은 제주 현감 최부가 제주도 추자도 해역에서 표류하여 중국 절강성 명주 근처에 표착한 뒤 겪은 이야기이다. 『표해록』과 『탐라문견록』은 한반도 서해의 환류현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

라, 제주도의 해상항로를 밝혀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탐라문견록』은 제주도와 동남아시아 사이에 바닷길이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해록』은 제주와 중국 명주항 사이의 해상항로를 가르쳐주고 있다. 『탐라지』에 "매양 봄 여름에 남쪽 수종 밖을 바라보면 높은 돛대를 단 큰 선박들이 무수히 지나가고, 흑치(黑齒)의 오랑캐들이 중국과 通商하는 길목이며 또한 해외 여러 만이(蠻夷)들의 物貨가 유통되는 곳이다."라 하였으니, 제주도가 해상교역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해상항로는 북로와 남로가 있다. 北路는 제주 해협을 통과하여 쓰시마와 이끼섬을 경유하여 일본 큐슈 하카다항으로 향하는 항로인데, 이 북로는 한반도 남단의 청해진을 경유하여 중국 산동성 방향으로 가는 항로다. 반면에 南路는 일본 큐슈 하카타항(博多港)에서 제주도 남쪽을 통과하여 중국 절강성 명주항, 천주항 등으로 횡단하는 바닷길이다.[3] 『탐라지』에 보이듯이, 제주도는 남로를 통하여 국제 해상교역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제주상인들이 명주, 천주, 광주로 향할 때에 이 남로를 이용하였다고 본다.[4]

## Ⅲ. 인도차이나의 밀교문화와 해양신앙

인도차이나는 인도와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받는 동남아지역을 말한다. 인도차이나에 속하는 영역은 버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인데, 이 지역은 거대한 반도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대륙과 해양을 통하여 인도, 인도네시아의 남방계와 중국 대륙의 북방계 문

3) 윤명철, 『장보고시대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117쪽.
4) 정수일, 『한국속의 세계』, 창비, 2005, 79쪽.

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곳이다. 인도차이나에는 기원전 2세기 경부터 기원후 15세기에 이르는 긴 세월동안 인도 종교가 지속적으로 전파되었다.[5] 인도에서 동남아시아로 전파된 주요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다. 힌두교와 불교는 독자적인 신앙체계를 갖고 전파되기도 하고, 두 종교가 융합한 밀교가 전파되기도 하였다. 密敎는 신비주의적인 불교라 할 수 있는데, 인도에서 힌두교와 불교가 혼합, 융화된 인도종교를 말한다. 이러한 인도의 밀교가 동남아시아에 빠르게 확산되고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신교적인 精靈崇拜에 기인하고 있다. 힌두교(Hinduism)는 불교와 달리 창시자나 통일된 교리체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神的 존재들을 숭배하는 多神信仰 체계를 갖고 있다. 힌두문화가 동남아지역의 소수민족에 확산될 수 있는 동기도 동식물 숭배, 정령신앙, 주술 등 신비주의적인 정령숭배를 갖고 있기에 원시적인 소수민족의 토착신앙과 잘 융합할 수 있었다.[6]

인도 밀교의 동남아시아 확산은 두 방향으로 문화전파가 이뤄졌다. 하나는 인도에서 서역을 통하여 중국 남부 서장자치구 소수민족과 버마, 라오스, 태국과 중국 낙양, 장안으로 진출해오는 내륙 지방의 전파 루트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밀교를 西藏密敎 또는 宗密이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인도인들이 바다의 해양항로를 통하여 교역하는 방편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밀교를 전파시키는 해양 루트이다. 인도 밀교는 뱅갈만의 해안선을 따라 해상교역을 하는 상인들에 의해서 인도차이나와 인도네시아로 확산되어 갔다. 인도 상인들은 금은보화와 값진

5) 류경희, 「힌두교와 동남아의 종교문화」『동남아 인도문화와 인도인사회』, 외국어대 출판부, 2001, 13쪽.

6) 이은구, 「앙코르와트와 동남아의 인도문화」『동남아 인도문화와 인도인사회』, 외국어대 출판부, 2001, 170쪽.

물건을 구하려고 해상항로를 이용해 동남아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상인들은 배를 타고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인도차이나 해역과 남중국해로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말라카 해협은 바닷길을 끼고 지정학적으로 동서문화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며, 인도 상인들이 배를 타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데 좋은 중간기항지 역할을 한 곳이다. 인도 상인들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여 인도차이나 해안과 남중국해를 거슬러 올라오면서 중국 강남의 해역까지 항해해 왔고[7]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들은 강남에 위치하는 복주, 광주, 천주, 온주, 명주 등 해안도시를 국제교역의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이 해안도시에는 신라, 고려 상인들도 진출하고, 인도 아랍계 상인들도 진출하여 커다란 국제 교역의 전진기지로 발달하였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해상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항해안전을 기원하는 해양신앙의 성지도 조성되었는데, 명주 주산군도의 보타낙가산이 그곳이다. 보타낙가산은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로 해역과 항로가 바뀌는 해상교통의 중간기항지로서 매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 보타낙가산은 인도 및 아랍 상인들이 중간기항지로 활용하면서 해양관음성지가 조성된 곳이다. 이러한 사실은 '普陀洛迦山'이라는 지명이 남인도의 '포탈라카(Potalaka)'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 뒷받침한다.

현장법사의 『大唐西域記』에 포탈라카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가) 말라야 동쪽에 포탈라카(Potalaka)산이 있다. 산길은 위험하고 압곡은 험준하다. 산정에 연못이 있는데 거울처럼 밝다. 물은 大河로 되어

7) 이은구, 위의 글, 176쪽.

> 산을 둘러 흐르기를 스무 바퀴나 하여 南海로 든다. 연못 옆에 석조로 된 天宮이 있다. 觀自在菩薩이 왕래하며 머무는 곳이다. 菩薩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신명을 돌보지 않고 강물을 건너 산에 오른다. 어려움을 개의치 않고 도달하는 자는 아무 드물다. 그런데 산팀의 주민으로서 모습을 보고자 기도드리면 관자재보살은 때로는 자재천의 모습으로 때로는 도회외도의 모습으로 되어 기원하는 사람을 위유하면서 소원 성취시켜 주기도 한다.[8]

(가)는 남인도 말라야산 동쪽에 布呾洛迦山이 있다는 내용이다. 말라야산은 남쪽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산으로 높은 벼랑에 험준한 영마루와 동혈같은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라야 산 동쪽에 포타락가산이 위치하는데, 그 곳에 觀自在菩薩[9]이 왕래하면서 머문다는 곳이다. 南海를 항해하는 인도 상인들은 인도 秣羅矩吒國의 포탈라카와 흡사한 지형의 주산군도 보타산에 동일한 지명을 붙여준 것이다. 주산군도 보타낙가산의 범음동에도 말라야의 포타락가산처럼 깎아지는 벼랑의 영마루와 洞穴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동혈에 관음보살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해의 항해자들이 인도 포탈라카 산에 상주하는 관자재보살을 중국 보타낙가산으로 옮겨와 봉안한 것이다. 인도의 海商들이 항해 도중 해상항로의 안전을 관장하는 관음보살을 해신으로 신앙하였으며, 이들의 해양신앙의례가 중간 기항지인 주산군도의 보타산에 항해안전 기도처로서 觀音聖地가 조성하게 된 동기였을 것이다. 중국 절강성 보타낙가산의 관음보살이 인도에서 인도차이나의 해안항로를 따라 올라와 상주하게 된 사실은 다음의 (나)의 내용으로 알 수 있다.

---

8) 玄奘法師, 『大唐西域記』 卷 第 十, 秣羅矩吒國.

9) 관자재보살은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백의대사 등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다.

그럼 먼저 중국 보타낙가산의 관음보살을 통해서 인도차이나의 해양 신앙을 살펴보자.

(나)관음보살이 ①南海 洛迦山에서 바다를 뛰어 넘어 普陀山에 도착한 후 다시 세 번을 뛰었는데 처음 뛰어 도착한 곳이 대거도 觀音山이고 두 번째 뛰어 도착한 곳이 사초도 大悲山이며, 세 번째 뛰어 도착한 곳이 소양도의 小觀音山이라고 한다. ②관음보살이 낙가산에서 보타산으로 뛴 것은 東海 舟山群島에 있는 천개의 봉오리가 관음시현의 최적의 장소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타산에 도착하여 주산군도의 봉오리를 아무리 세어보아도 천개 봉오리 중 한 개가 모자랐다. 이상히 여겨 다시 한 번 뛰어 대거도 관음산 꼭대기에 도착하여 다시 세어보아도 하나가 모자랐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사초도 대비산으로 뛰어가서 세어보았지만 여전히 하나가 모자랐다. 세 번 만에 소양도의 소관음산으로 뛰어간 관음은 이번에도 세고 또 세어보았지만 여전히 모자랐다. ③그러던 중 몸을 숙여 자신이 올라있는 산마루를 보고 피식 웃었다 알고보니 자신이 앉아있던 산을 세지 않았던 것이다. 나중에 관음보살이 다시 보타산으로 돌아왔지만 그녀가 세 번 뛰어 머물렀던 산은 불화의 선기가 생겨 바다의 명산이 되었고, 이것을 믿는 신도들도 이 명산에 계속해서 名刹을 지었다고 한다.[10]

(나)는 절강성의 보타낙가산이 관음성지로 조성된 관음연기설화이다.

(나)-①은 인도의 포탈라카산과 중국의 보타낙가산 사이에 해상항로가 열려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관음보살이 남해항로를 따라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데 바다를 뛰어넘을 만큼 거구라는 사실이며, 중국 보타산에 도착해서도 대거도 관음산, 사초도 대비산, 소양도 소관음

10) 曲金良, 「中國 舟山群島 嵊泗縣의 祠廟와 海洋信仰」『島嶼文化』 제26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 194쪽.

산을 세 발자국으로 뛰어 다녔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세 곳의 섬을 세 번에 뛰어 건너다녔다는 것이다.

〈그림 2 관음보살이 뛰어다녀 남긴 보타산의 발자국유적〉

(나)-②는 남해의 관음보살이 인도 포탈라카에서 바다를 뛰어 넘어 동해의 보타산에 당도한 것은 보타산이 관음성지의 최적지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남인도 포타락카 지방의 관음신앙이 남해의 해양실크로드를 따라 주산군도의 보타산에 건너와 관음성지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음성지를 조성한 주체는 인도 상인 및 海商들이었을 것이다.

(나)-③는 관음보살이 남해의 포탈라카에서 동해의 보타낙가산으로 바다를 뛰어넘은 뒤에 다시 보타산의 관음산, 대비산, 소관음산을 세 번에 뛰어다닌 키가 무척 크고 거구로서 세발자국의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그림2>는 세 발자국의 보타산에 있는 관음보살의 발자국유적이다. 이 세 발자국의 주인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나)에 등장하는 관음보살은 인도 남해의 포탈락카에서 중국 동해 보타산으로 세 번에 뛰어왔다는 남해관음이다.[11] 그렇다면 이 남해관음은 얼마나 큰 거구의 신체를 가진 것일까? 『觀無量壽經』제 14장에 관음보살의 키가 80만억 나유타 유순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남해관음의 신장은 이루 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키를 가졌다고 본다.

11) 송화섭, 「韓 · 中 觀音化身說話의 比較 硏究」『역사민속학』제3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나)에서 南海觀音이 인도 포탈락가산에서 세 걸음만에 중국 보타산에 온 것은 힌두신 비슈누가 세 걸음만에 宇宙 三界를 창조하였다는 化身說話를 차용한 것이다. 비슈누(Vishnu)는 10가지의 化身 능력을 가진 힌두신이다. 비슈누의 화신 설화가운데 비슈누가 난장이(Vamana)로 화신하여 발리에게 세 걸음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발리가 이에 응하자 난장이었던 비슈누가 갑자기 巨人의 모습으로 화신하여 세 걸음을 걸어 우주 삼계를 창조하였다는 전설이 있다.[12] 그리하여 비슈누는 난장이에서 거구로 화신하여 우주의 삼계를 세 발걸음으로 횡단한 자(trivikrama)라는 상징을 갖고 있다.[13]

인도에서 비슈누와 관음보살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동기는 해신이라는 것과 뛰어난 화신 능력과 발자국의 영험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슈누가 10가지의 화신 능력을 가졌듯이,[14] 관음보살도 33가지로 화신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비슈누가 세발자국에 우주 삼계를 횡단하였듯이, 관음보살도 한 발의 발자국을 디디면 그 빛이 바로 금강마

12) 『리그베다』성전에는 비슈누신이 난쟁이에서 거인으로 자라 세 발걸음으로 삼계를 건너뛴다. 이 세 발걸음은 일출, 정오, 일몰을 상징한다. 비슈누신은 세 걸음으로 우주를 횡단하는 자이다. 악마 아쑤라와 일치되는 드라비다족의 왕인 발리(Bali)가 삼계(三界)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였다. 비슈누신은 난장이 모습을 한 브라흐만 학생으로 발리의 말의 공희에 참석한다. 비슈누는 발리에게 세 걸음의 땅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악마의 힘을 과신하던 발리는 그의 요구를 허락하였는데, 왜소한 난장이가 갑자기 뜨리비끄라마(trivikrama)로 성장하여 첫걸음으로 땅을 재고 두 번째 걸음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세 번째 걸음을 걸으려 하자 쁘라홀라다가 나타나서 조카 발리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간청하고 있다. 난장이로 화신한 비슈누는 세 걸음의 소유자로서 우주의 삼계를 창조하고 있다.(안넬리제+페터카일아우어, 『힌두교의 그림언어』, 전재성 옮김, 동문선, 136쪽)

13) 안델리제+페터카일아우어, 『힌두교의 그림언어』, 김대성 역, 동문선, 135쪽.

14) 비슈누의 화신은 빠트씨야(물고기), 꾸르마(거북), 바라하(멧돼지), 바마나(난장이), 빠라슈라마(도끼를 든 라마), 라마찬드라, 끄리슈나, 붓다와 깔낀이다. 이 가운데에서 비슈누가 바마나로 변신한 것이다.

니보배꽃으로 변하여 온 땅위에 그윽하게 흩어진다는 영험력을 갖고 있다.[15] 관음보살은 기원후 1세기경 인도에서 대승불교와 함께 탄생하는데, 탄생 단계부터 힌두교의 비슈누와 융합한 상태에서 태동하였다. 관음보살과 비슈누는 둘 다 '바다의 신'이었기에 융합될 수 있었다. 비슈누는 우주적인 바다속에서 무한뱀의 침대에 누어 명상에 잠겨 우주창조를 꿈꾸는 나라야나 아난따(Narayana Ananta)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우주적인 나라야나가 불교의 도상학과 결합하는 비스와루빠(Vishvarupa)의 모습을 보여준다. 비스와루빠는 11개의 머리를 가진 관세음보살의 영감을 받아 많은 머리와 팔을 가진 모든 것을 형성하는 자로서 비슈누의 모습을 하고 있다.[16] 비슈누가 불교의 도상과 결합하므로서 관음보살상의 원초적인 모습도 비슈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슈누상이 王冠形의 頂髮寶冠과 裸形의 상반신 가슴에 瓔珞을 달고, 무릎까지 내려온 화환의 모습을 하였는데[17] 이러한 모습은 관음보살상의 신체 장식과 매우 흡사하다. 이와 같이 비슈누가 바다 속의 구원자인 비스와루빠로 묘사되면서 관음보살과 거의 동일한 神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18] 비스와루빠는 남인도에서 유사한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법화경』에 관세음보살이 항해의 구원자로 신앙되면서 비슈누와 관음보살을 동일한 해

15) 『관무량수경』 제14장 관음보살을 생각하는 관
「관세음보살이 발을 들 적에는 발바닥에 있는 천복륜의 발금이 저절로 500억의 광명으로 비추느니 발자국을 디디면, 그 빛이 바로 금강마니보의 금강마니보배꽃으로 변해 온 땅위에 그득하게 흩어지느라.」

16) 안델리제+페터카일아우어, 『힌두교의 그림언어』, 김대성 역, 동문선, 2008, 115~119쪽.

17) 미야지아키라, 『인도미술사』, 김향순 · 고정은 역, 다홀미디어, 2006, 2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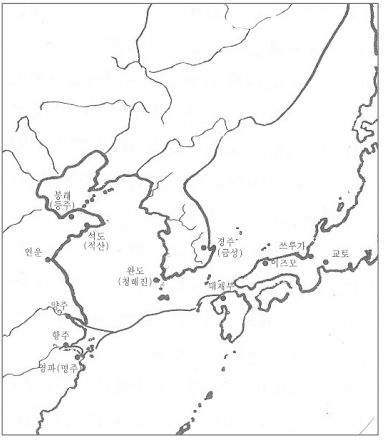
18) 힌두교와 불교의 갈등은 힌두교가 불교와 민간신앙까지 끌어안자, 불교도 힌두교와 민간신앙까지 끌어안으면서 밀교화가 이뤄진 것이다.(이영재,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운주사, 2004, 155쪽)

신으로 신앙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난장이에서 거인으로 화신한 비슈누와 관음보살이 결합한 관자재보살이 남인도의 포탈락카산에 항해보호신으로 상주하고 있는데, 비슈누가 세 발걸음으로 우주 삼계를 건너뛰듯이, 관음보살이 남해 포탈라카에서 세 걸음만에 동해 보타낙가산으로 건너왔다는 관음연기설화다. 남인도의 관자재보살이 바닷길 따라 중국 절강성으로 건너온 동기는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그 주체는 海商이었다고 본다.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들은 중국 복건성, 광동성, 절강성의 남해에 진출하여 교역을 주도하면서 복주, 광주, 천주, 온주, 명주 등지에 국제교역 해안도시를 조성하고, 명주 주산군도의 보타낙가산에 관음성지를 조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해상들이 항해수호신으로 관음보살을 신앙하게 된 것일까.

관음보살은 『法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에 "중생들이 금·은·유리·자거·마노·산호·호박·진주 등 보물을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이 불어 그 배가 餓鬼인 나찰의 나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가운데 한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海難을 벗어날 수 있으리니"라 하였다. 또한 『觀無量壽經』제 14장에 "만약 관세음보살을 보고자 한다면 마땅히 내가 말한 것과 같이 해야 하느니라. 이러한 관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재앙도 만나지 않고, 업장을 말끔하게 소멸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겁 동안에 생사(生死)의 바다에서 헤매이는 죄업을 없애느니라. 그래서 다만 관세음보살의 그 이름만 들어도 무량한 복을 얻을 수 있다."하였다. 이 두 불경의 내용에서 바다를 항해하는 해상들이 관음보살을 절대적인 항해수호신으로 신봉하게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항해 도중 관음보살을 부르며 항해한다면 아귀의 나찰에서 구제받을 수 있으며, 해난을 극복하고, 생사의 바다에서 헤매이는 죄업이 없어진다 하니 해상들에게 관음보살을 신봉하는 길

외에 달리 항해안전 장치는 없었을 것이다.



〈그림 3 남로도〉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제주도의 영등할망 설화도 관음보살을 부르며 항해하면서 아귀의 나찰에서 구제받는 것으로 묘사된 것이며, 선문대할망은 (나)의 관음보살이 화신한 해신이다. 이러한 인도 계통의 관음신앙이 제주도에 깊게 스며 있다는 점은 제주도가 동아시아 해상교통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보아야 한다. 남인도 포타락가(Potalak) 지역의 관음신앙이 중국 주산군도의 보타낙가산에 전파된 뒤에 보타낙가산의 관음신앙이 제주도에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명주항에서 남로를 이용하여 후쿠오까 하카타항으로 향하게 되면 제주도 한라산을 항해의 물표로 삼거나 경유하게 된다. 항해 도중 풍랑으로 기상여건이 불량하면 서귀포항으로 피항할 수 있어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상선과 사신선들이 남로를 빈번하게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영등할망과 선문대할망 설화는 해상과 사신선 등 항해자들이 일본 구주와 중국 명주를 오가면서 제주도를 중간 기항지로 삼고 정박하면서 유포한 관음연기설화라 할 수 있다. 관음의 바닷길은 인도에서 인도차이나 해역을 따라 북상한 후에 중국 절강성의 보타낙가산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건너오는 해로였다고 본다. 따라서 제주도의 관음신앙은 중국 절강성 주산군도의 보타낙가산 계통의 관음신앙이라 할 수 있다.

## Ⅳ. 동아시아 해양신앙과 한반도 해양신앙

### 1. 중국 보타낙가산의 해양신앙

동아시아 관음의 바닷길은 인도에서 인도차이나를 경유하여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에 이르고 보타낙가산에서 제주도, 한반도 남부까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해양실크로드를 관장하는 해신이 관음보살이다.[19] (나)는 인도에서 인도차이나를 경유하여 중국 주산군도까지 해상항로가 열려있고, 이 항로의 해역에는 관음신앙이 성행하고 곳곳에 관음보살을 모신 사당과 사찰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觀音路의 조성은 상인들이 바다에 나가 금은보화를 얻고자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진출하면서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기는 2~3기경에 힌두신앙과 결합된 관음신앙이 해상들에 의해서 유포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서 관음신앙이 등장하는 시점은 백제시대이다. 백제시대의 관음신앙은 태안반도 백화산에 위치한 마애삼존불과 관세음응험기이다. 태안마애삼존불은 백제시대 관음신앙이 항해안전을 돕는 해양신앙으로 정착하였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태안마애삼존불이 위치하는 백화산의 지명이 관음도량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제시대 관음신앙의 전래를 보여주는 『관세음응험기』[20]가 있다. 내용가운데에는 승려 발정이 중국 양나라에서 30여 년간 유학을 하다가 대동연간(535~546)에 백제에 돌아오기 위하여 중국 월주 계산에 위치한 觀音堵室에 들러 「화엄경」과 「법화경」을 독송하는 수행자 2명을 목격한 이야기를

19) 송화섭, 「관음의 바닷길과 한반도 서남해안의 관음상」『해양문화학학술대회 자료집』 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9, 148쪽.

20) 牧田諦亮, 『六朝古逸觀世音應驗記の研究』

적고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다)화엄스님은 과연 40권짜리 「화엄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줄줄 내리 외웠다. 그런데 법화스님이 「법화경」을 외우기 시작하자 공중에서 꽃비가 내려 堵室은 꽃송이로 가득하고 향기는 온 골짜기에 퍼졌으며 서기가 온 하늘을 덮어 이루어 헤아릴 수 없었다. 이에 놀란 화엄스님이 그제야 깨닫고 급히 땅에 내려서서 피가 흐르도록 머리를 조아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를 한 다음에 작별을 고하였다. 법화스님이 만류하면서 ①"늘 한 늙은이가 점심때가 되면 밥을 날라오므로 그대는 잠깐 기다려주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늙은이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으므로 화엄스님은 그대로 떠나갔다. 그런데 법화스님이 물을 길러 갔더니 ②그 늙은이가 먹을 것을 가진 채 숲속에 숨어 있었다. 너무나 이상하여 법화스님이 "저의 친구가 마침 왔기에 함께 요기를 하고자 하였는데 무슨 일로 여기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늙은이가 "그 사람이 나를 그토록 경시하는데 어떻게 참고 만날 수 있겠소"라고 대답하였다. ③법화스님이 이 말을 듣고서 그제야 늙은이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신임을 알고 땅에 넓죽 엎드려 지성어린 인사를 올렸다.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드니 늙은이와 음식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다)는 백제의 발정스님이 겪은 관세음응험인데, 그가 관세음응험을 목격한 곳이 越州界의 해안이다. 이곳은 지금 보타낙가산의 관음성지가 조성된 명주와 주산군도 일대를 지칭한다. 이 지역의 越州窯 유물 가운데 서역의 불교조상이 대량으로 출토하여 서역의 불교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21] 이 불교문화는 해상실크로드로 통해서 전래해온 것으로 보인다. 삼국의 吳와 晋代에 월주요에서 생산된 鷄首

21) 林士民, 「동아시아 해역항로에 관한 연구」『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186쪽.

壺가 백제지역에서 발견돼 梁代 이전부터 남조문화가 백제에 전래된 것으로 보여, 백제가 남조의 불교문화를 일찍부터 받아들였다고 본다. 발정 스님이 응험한 (다)의 관음연기설화는 양대에 관음신앙이 백제에 전래되었음을 의미한다.[22] 발정 스님은 명주 주산군도에서 사단항로를 이용하여 백제로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

(다)-①은 법화스님에게 매일 점심밥을 날라다 주는 늙은 할머니가 있으며,

(다)-②는 이 할머니의 거처는 해안의 숲속이며,

(다)-③은 법화스님이 이 할머니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알아차리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있다.

(다)는 위진남북조시기에 중국 월주계 해안지역에 관음성지가 조성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관음신앙도 관음보살이 할머니로 화신하는 관음화신신앙이 성행한 것으로 보이며, 관음보살이 고행의 중생에게 쌀밥의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월주계의 관음도실이 보타낙가산이라는 사실이 보타산에서 전승하는 관음연기설화로 확인되고 있다. 보타낙가산에는 다음과 같은 단고도두에 관련하는 관음연기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 (라)아주 오래 전에 올케와 언니 두 사람이 있었다. 평시에 먹는 것, 쓰는 것을 아껴 여러 해를 지내서 겨우 겨우 약간의 돈을 모았다. 두 사람은 염불 바구니를 들고 함께 배를 타고 보타산에 가서 향을 피우고 관음을 만나러 떠났다.
>
> 그때는 보타산에 부두가 아직 없었다. 작은 배는 남천문 서쪽의 한 옅은

22) 黃有福 陳景富, 『韓中佛教文化交流史』, 까치, 1995, 104쪽.

곳에 밧줄을 맸다. 조류가 물러나자 사람들은 총망히 해안에 올랐다. 오직 올케만 배를 끌어안고 머리를 숙인 채 배 속에서 꼼짝도 안하고 있었다. 언니는 급해서 그녀에게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아가씨는 얼굴을 붉히며 쭈물쭈물 언니에게 알려주었다. 월경이 와서 몸이 깨끗하지 못하므로 불문성지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언니는 듣자마자 원망을 하며 "다 큰 아가씨가 월경 오는 날짜도 잘 모른단 말인가, 지금 관음을 만나는 일을 다 그르쳤으니 정말 스스로 화근을 만드네."하고 수차례 꾸중을 한 후 혼자서 염불바구니를 들고 산에 향을 피우러 갔다.

〈그림 4 보타산 노파가 만든 부두 단고고적〉

이때 배의 주인은 해안에 술 마시러 올라갔고, 배안에는 올케 혼자만 남았다. 그녀는 자기가 향도 제대로 못 피우게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언니에게 한바탕 혼까지 났으므로 후회도 되고 괴로웠다. ①이때 죽림에서 한 늙은 할머니(老婆)가 한손에는 지팡이를 한 손에는 참대바구니를 들고 한 걸음, 한걸음 배가 정박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돌멩이 한 줌을 쥔 다음 바다를 향해 한 알을 던졌다. "풍덩"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돌멩이가 바다 속 깊이 들어가자 금방 하나의 큰 바위로 변했다. 이렇게 하나씩 돌멩이를 던지자 옅은 해안은 반듯한 바위들이 줄지어져서 배 옆에까지 이르러 하나의 부두가 되었다. ②할머니는 해안에 도착한 후 웃으면서 아가씨에게 말했다. "아가씨, 배고프죠?" 한편 바구니를 덮은 천을 열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밥과 반찬을 한 그릇 내놓았다.

아가씨는 할머니가 밥과 반찬을 갖고 온 것을 보고 놀랍게 물었다. "할머니, 당신은 어떻게 제가 여기서 굶고 있는지 알았어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웃으면서 "너의 언니가 나를 보낸 것이란다. 어서 빨리 먹어라."고 말했다. 아가씨는 마침 배고팠던 터라 사발에 담아 맛있게 먹었다. 배불리 먹고

그제서야 얼굴을 붉히며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그릇들을 챙겨 바구니에 담은 후 돌아갔다. 아가씨는 졸려서 배에 앉은 채 잠이 들었다.

배의 주인이 술을 다 마시고 돌아온 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곳에 어떻게 이런 부두가 하나 생겼지?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걸가? 그는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았다. 틀림없었다. 자기의 작은 배가 아직도 저기 있지 않은가? 이때 언니와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왔다. 배 주인의 말을 듣고 다들 놀라워했다. 언니는 배에 들어서서 아가씨를 깨우며 부두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다. 아가씨는 머리를 흔들면서 자기도 모른다고 했다. 언니는 한편 원망하면서 한편 바구니 속에서 큰 떡 두 개를 꺼내면서 말하기를 "너도 참, 잠밖에 몰라. 빨리 먹어"라고 했다. 아가씨는 "언니가 밥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지 않았나요?"고 했다.

언니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언제 사람을 시켜 밥을 보냈겠어. 너 꿈 꾼 것 아니야?"

아가씨는 금방 할머니가 밥을 보내온 일들을 말했다. 배 주인은 듣고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여 다리를 탁 치면서 말했다. "이 부두를 만들고, 밥을 갖다 준 사람은 틀림없이 관음보살(觀音菩薩)이야." 사람들은 모두 아가씨를 위해 기뻐했다. ③사람들은 그녀에게 직접 관음보살이이 나타난 것이라 믿고, 올케는 관음보살님이 보내준 밥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언니는 그래도 의심스러워 한달음에 절의 대웅보전에 달려가 자세히 보니 관음보살이 입은 옷의 자락이 아직도 바닷물에 젖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가! 언니는 이제야 배 주인이 한 말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보타산에는 선박을 댈 수 있는 부두가 생겼다. 언니가 아가씨를 혼낸 이 한 단락의 이야기가 있으므로 후세사람들은 이 부두를 "단고도두"라고 불렀다.[23]

(라)는 보타낙가산에서 현전하는 관음연기설화이다.

23) 朱封鰲, 『普陀山觀音文化勝跡遊訪』, 宗教文化出版社, 2002, 171쪽.

(라)-①은 보타산 자죽림에 할머니(老婆)가 해신으로 거처하고 있다. 자죽림은 보타산에 조성된 대나무숲을 말한다. 보타산할머니가 단고(短姑)란 비슈누가 난장이 할머니로 화신하였다는 믿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라)-②는 굶주림에 지친 구도자 올케에게 밥과 반찬 바구니를 갖다 주고 있다.

(라)-③은 올케에게 밥을 갖다준 할머니가 관음보살의 화신임을 깨달은 뒤에 사찰로 달려가 관음보살의 옷자락을 확인하고 있다.

(다)(라)는 시대적 간극은 있지만, 보타산에서 전승해오는 관음연기설화이다.

두 관음연기설화의 공통점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월주는 현재의 영파지역으로 삼국시대부터 남북조시대까지 해상교통이 발달한 곳이며, 해상교통의 발달은 항해보호의 관음신앙을 동반하여 발달시켰다고 본다. 지금도 월주지역인 명주, 항주 일대에는 관음신앙이 강력하게 전승되고 있다.

둘째, 관음보살의 할머니가 등장하는데, 할머니는 대나무숲인 紫竹林에 거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는 수행자와 구도자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밥과 반찬을 갖다주고 있다. 밥은 중생구제의 상징이지만, 그 배경은 도작농경문화에서 태동한 남방계 관음신앙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셋째, 관음보살이 할머니로 화신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할머니가 해신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중국 절강성의 지역적 특징이다. 관음보살이 할머니로 화신하는 경향이 인도차이나 해안 지역에서 나타나는지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다)에 의하면, 남북조시대에 越州지역에 할머니가 해신으로 존재하였으며, 이 할머니 해신이 한반도와 제주도로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

## 2. 한반도의 해양신앙과 할머니신

중국 보타산과 사단항로가 연결된 한반도 서남해안 지역에는 해신으로서 할머니신(또는 할미신)이 등장하고 있다. (다)(라)는 중국 월주계인 명주 보타낙가산에 할머니신이 해신으로 상주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관음보살의 화신이라는 점이다. 이 보타낙가산의 할머니와 관음보살이 한반도와 연결된 사단항로를 따라 바다건너 왔다고 보는데, 한반도에서 할미신은 산신과 해신으로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한반도에 등장하는 할미신은 두 유형이 있다. 하나는 석탈해와 김알지 신화에 등장하는 할미신으로 건국 시조인 왕을 탄생시키고 키우는 출산·양육적 성격의 할미신으로 등장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제주도 선문대할망과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처럼 키가 크고 거구의 신체를 가진 할미신의 유형이 있다. 전자는 삼국시대, 통일신라시기에 한반도에 전래한 건국시조를 탄생시키는 노구로서 중국의 泰山娘娘같은 신격의 할미신이라 할 수 있다면, 후자의 할미신은 산신과 해신의 신격으로 등장하고 있다. 할머니가 산신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노고산, 노구산, 노고산성, 할미성, 할미산성, 홀어미산성 등, 산에 산신으로 좌정하거나 산성을 축조하는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경우다. 이러한 산신할머니는 기본적으로 거구의 몸집으로 힘이 세고 섬을 옮기거나 바다 위를 건너다니는 신통력을 갖고 있는데, 할미신은 선문대할망, 영등할망, 개양할머니, 마고할미 등이 이에 속한다. 이 할머니들은 주로 한반도 서남해안에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의 선문대할망은 한라산의 산신이면서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항해자들을 돌보는 해신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양할미 역시 선문대 할망처럼 키도 크고 신체도 거구인데 수성당의 여울굴에 거처하면서 변산반도 앞 바다를 항해하

는 항해자들을 돌보는 해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선문대할망과 개양할미는 키가 크고 신체가 거구의 할머니라는 점에서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볼 수 있다. (다)(라)에서 중국 보타낙가산의 할머니는 거구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할머니로 화신하는 관음보살이 거구의 신체를 가진 점에서 관음보살이 할머니로 화신하여 한반도의 제주도와 변산반도로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 이 거대한 신체의 할머니신을 마고할미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신격이 복잡하게 형성되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마고할미의 경우, 본래 마고는 낭낭 18세의 젊은 여인이지만, 후대에 거구의 신체로 괴력의 신통력을 가진 할머니와 결합하면서 산봉우리에 걸터앉거나 산오름을 만들거나 산을 옮기거나 돌로 산성을 쌓거나 바다를 걸어다니는 등 다양한 능력을 소유한 산신과 해신으로 등장하고 있다.[24] 이렇듯이 중국 보타낙가산에서 건너온 관음신앙은 단순히 관음보살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신앙된 할머니신이 산신과 해신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마고할미와 벽하원군까지 결합하면서 매우 복잡한 신격으로 등장하고 있다.[25] 바닷가에 상주하는 할머니 해신은 변화무쌍한 해상의 기류만큼이나 다양한 해신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제주도의 영등할망과 선문대할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4) 송화섭, 「한국의 마고할미 연구」『역사민속학』28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25) 송화섭,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 고찰」『민속학연구』 제22호, 국립민속박물관, 2008.

# Ⅴ. 제주도의 영등할망·설문대할망과 관음신앙

## 1. 영등할망과 관음신앙

한국의 해양신앙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곳이 제주도다. 제주도는 일본 구주 후쿠오까와 중국 절강성 명주를 잇는 남로의 중간 기항지로서[26] 해상교통이 발달한 곳이며, 명주항은 남해와 동해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국제교역의 전진기지로서 일찍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한 곳이었다. 제주도가 쿠로시오 해류권에 속하면서 중국 명주항 및 보타낙가산과 연결된 항로상에 위치한다는 관점에서 영등할망 설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옛날 성은 황씨 이름은 영등이라는 민간 사름도 아니고 저싱 사름도 아니고 요왕 사름도 아닌 대왕이 무휴에서 솟아나 요왕황저일 들어가 이때 동정국 애기씨 ᄒᆞ고 서정국 부인광, 서녀광 사이가 나발이필개에서 노념을 홀때에 한수릿 ①괴깃배가 풍파를 만나서 외눈배기 땅데레 불려감시니 영등대왕이 나산 "저 사름을 구제해서 살리라"ᄒᆞ여 근 왕석 우이 가 앚아시니 배가 그 안으로 들어갔수다. 영등대왕이 그 사름들을 전부 왕석 쏘곱데레 곱져 부니 외눈배기놈들이 물어먹을랴고 개를 ᄃᆞ리고 들어오면서 "이제 존 반찬이 왔는디 어디 갔느냐?"고 하자 영등대왕은 "나도 그런 걸 봉글라고 나앚았다"하니 외눈배기놈들은 다 나가부렸수다. ②영등대왕은 배를 내여 놓아 보제기들을 보내면서 "이 배를 탕가면서 '가남보살 가남보살'ᄒᆞ멍가라"고 시켰수다. 보제기들은 배를 타두서 "가남보살 가남보살"을 불르멍 돌아오는디 거저ᄒᆞᆫᄀᆞ이 당ᄒᆞ여가난 "가남보살을 아니불른덜 이제사 관계 엇다"해서 그만 가남보살을 아니불르니 호련 강풍이 또시 일어가지고 또로 외눈배기 땅데레 들어가니 영등대왕은 ᄀᆞ리에 그 자리에 나앚아 이서 보제기들은 "살려줍서"고 빌었수다. 영등대왕은 "왜 그때에 내가 뭐라고 하더냐?"ᄒᆞ면서 "따시 가남보살 가남보살을 불르멍 가라"고 하였수다. 경ᄒᆞ고

26)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476쪽.

또 흔ᄀᆞ딜 가더라도 가남보살을 불르멍 댕이곡 영등ᄃᆞᆯ 초ᄒᆞᆯ를날랑 날 생각ᄒᆞ여라"하니 그 때에 보제기들은 가남보살을 불르멍 괴양한수리ᄁᆞ지 돌아왔수다 글지후제 외눈배기놈들은 영등대왕신디 가 "당신 덕분에 존 반찬을 못 먹었다"고 해서 영등대왕을 장도칼로 삼도막에 그차 죽여 바당데레 대껴부니 머릿빡은 소섬으로 올르고 발치거린 한수리 비꿀물로 올르고 한존동은 청상으로 올르니 민간 백성들은 바당에 수중액을 막아둔 영등대왕이 그 은혜를 생각ᄒᆞ연 소섬에서 정월구믐날 제를 치고 초ᄒᆞᆯ를날 비꿀물에 오고 청산은 초닷쇗날 영등제를 시작흡네다. 그 때에 영등대왕이 제를 잘 받아먹으면 고양데레 가곡 일년에 한번 돌아보는 조상이우다. 이 영등대왕은 소섬에도 처가 있고 한수리도 처가 있어 각시는 삼첩입네다.[27]

(마)는 제주도의 영등할망 관련설화이다.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의 고깃배가 풍랑을 만나 외눈배기섬으로 표류하여 갔다.(마-①) 외눈배기섬과 강남천자국이 어디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제주도에서 표류하면 당도하는 곳으로 설정해볼 수 있다. 제주도에서 표류하면 중국 절강성 명주, 대만, 오끼나와, 필리핀, 베트남 같은 곳에 당도하는데, 외눈배기섬도 그 언저리에 있는 食人國같은 나라라고 본다. 강남천자국 외눈배기섬은 영등할망이 산다는 곳이다. 강남천자국은 중국 남쪽에 위치한 천자국, 즉 佛教聖地로 추정되는데 천자국이란 정체가 묘하다.[28] (마)는 제주도에서 표류한 어부들이 외눈배기섬에 끌려갔다가 영등대왕의 도움으로 해로를 통하여 제주도로 돌아온다는 전설이다. 영등대왕이 배를 내어 보제기들을 태워 보내는데, 항해하면서 '가남보살 가남보살'을 부르면서 가라고 부탁한다. 그런데 항해 도중 관음신앙을 무시하고

27) 허남춘 · 강소전, 「해양과 바람의 민속학적 접근」『해양문화학』 학술대회자료집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9.

28) 강남천자국은 강남 지역에 위치한 江南天竺國에 대한 오역일 수 있다.

가남보살을 부르지 않으니 강풍이 일어나서 외눈배기섬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마-②)

외눈배기섬 사람들은 표류해온 어부를 반찬으로 생각하는 무서운 식인국 사람들이다. 영등대왕의 지혜로 살아서 돌아온 보제기들이 외눈배기들에게 죽임을 당한 영등대왕의 은혜를 기리며 2월 초하룻날에 영등굿을 지내고 있다. 영등대왕의 요청으로 보제기들이 배를 타고 오면서 부른 '가남보살 가남보살'은 항해도중 '觀音菩薩 觀音菩薩'을 불렀다는 것이다.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에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폭풍이 불어 그 배가 餓鬼인 羅刹들의 나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한사람이라도 '觀世音菩薩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다 羅刹들의 災難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라고 하였다. 『법화경』에 따르면, (마)의 강남천자국의 외눈배기섬은 불교에서 餓鬼인 나찰들이 득실거리는 食人國을 가리킨다. 나찰은 印度神話에 등장하는 괴상망측한 귀신으로 사람들을 잡아 날카로운 이빨로 피와 살을 뜯어먹는 아주 흉악하기 짝이 없는 무서운 귀신을 가리킨다. (마)는 어부들이 표류하여 아귀의 나라에 끌려가더라도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나찰의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관음신앙을 실천적인 교훈으로 보여준 설화라 하겠다.

제주도의 영등신은 바람신이다. 영등신은 2월 초하루에 들어왔다가 15일 경에 우도를 거쳐서 나간다고 한다. 제주도가 쿠로시오 기류권에 속해있는 섬이기에 정월에는 매서운 추위와 거센 바람으로 거대한 파도가 내리쳐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가지 못하지만,[29] 2월부터는 바람이 순조로워져 어로와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기 위해 영등제를 지낸다. 『신

29) 崔溥, 『漂海錄』 閏十六日
「大抵每歲正月 正當隆寒之極 颶風怒號 巨濤震激 乘船者所忌 至二月漸得風和 濟州俗猶號爲燃燈節 禁不渡海」

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풍속조에 "2월 초하루에 제주의 귀덕, 금녕, 애월 등지에서 영등굿을 했다."라고 기록하여 제주도의 영등굿은 조선시대 이전으로 올라가는 역사를 갖고 있다. 영등굿은 영등맞이굿이라고 부르는데,[30] 영등맞이굿은 바람신을 맞이하여 영등굿을 지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영등신은 어디에서 건너오는 바람신일까. 영등신을 맞이한다는 것은 영등신이 바람따라 바닷길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들어온 渡來神임을 말해준다. 바람신은 바다의 기류을 관장하는 신이라 할 수 있고, 영등굿은 연등제의 유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시대에 제주 해역에서 항해안전을 관장하였던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의례의 유풍이었던 것이라고 본다.[31] 제주도의 해상들도 제주항로의 남로를 이용하여 중국 강남의 명주, 천주, 광주 등으로 진출하였으며, 이곳을 오가면서 항해안전을 기원하며 관음보살을 불렀을 것이다. 이러한 해양신앙의례가 영등할망설화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등할망이 산다는 강남천자국 외눈배기섬은 중국 강남지역 어느 지점에 위치한 불교성지로 추정된다.

(마)는 제주 해역에서 이상기류의 풍랑으로 海路가 험하여 항해하는 배가 침몰하거나 표류하는 일이 빈번하였음을 반영한 것이다. 영등할망설화는 무역선이나 고기잡이배들이 풍랑을 만나 생사의 바다를 표류하면서 관음보살! 관음보살!을 부르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관음연기설화다. 그런 점에서 영등할망 설화는 제주 해역에서 항해자들과

30)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편, 2009, 650쪽.

31) 고려시대는 해양호족세력이 건국을 주도하였기에 국제적인 해상교역활동을 적극적으로 선도하였다. 통일신라기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중국 강남의 명주, 천주, 온주, 광주 등은 신라와 고려의 교역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지의 역사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제주의 해상들도 남로를 이용하여 광주, 천주, 명주 등으로 진출하였을 것이다.

어부들에게 海難에 대응하는 교훈적인 설화라 할 수 있다. 교훈적인 측면에서 외눈배기섬은 이어도같이 상상의 섬일 수도 있다. 제주 해역의 남로를 항해하는 배들이 풍랑을 피하기 좋은 곳은 서귀포항이라 할 수 있으며, 서귀포에는 고려시대 사찰인 法華寺가 있었다는 사실은 제주해로의 남로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서귀포에 정박하고 법화사에 들러 항해안전을 기원하는 불교의식을 거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2] 제주항로의 남로를 통과하는 배들이 대체로 중국 절강성 명주항 및 보타낙가산에서 출항한다는 점에서[33] 江南天子國은 海天佛國인 觀音聖地 普陀洛迦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영등할망은 항해수호신인 관음보살이 화신한 것으로 보인다.

## 2. 선문대할망과 관음신앙

제주도 선문대할망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설화가 있으나, 선문대할망의 신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 (바)옛날에 옛날에 옛날에도 아주 아득한 옛날에 제주도엔 설문대 할망이라는 아주 키가 큰 할망이 잇엇수다. 이 할망은 설문대 할망이라고 하지마는 선문대할망, 설명주할망, 세명뒤할망, 쉐멩디할망이라고도 하는디 이 할망을 제주도 사름치고는 모르는 사람이 엇수다. ①이 할망의 키는 어찌나 크던지 한라산에 걸터앉아 발은 쇠섬(제주도의 동쪽에 있는 섬, 우섬)에다

32) 제주도는 고려시대 해상교통의 중간 기항지로서 법화사지 외에 항해안전을 기원하는 관음도량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사찰명가운데 보문사, 묘련사, 원당사 등은 고려시대 관음도량으로서 항해자들이 찾아가 항해안전을 기원하였던 항해안전 기원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연구』, 신서원, 2000, 197쪽)

33) 임사민, 「동아시아 해역항로에 관한 연구」『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187쪽.

뻗고 또 한 발은 앞의 범섬에다 뻗고 팡돌(빨랫돌)로 삼어서 빨래를 했다고 합니다.

②설문대할망은 이와같이 키가 굉쟁이 컷기 때문에 옷을 헤입지 못힛수다. 그래서 설문대할망은 자주 사름들라 내 옷을 한벌 해주면 나는 육지까지 드릴 놓아주것다고 힛수다. 지주 사람들은 그렇게 하자 하고 지주에 잇는 옷감을 모앗고 설문대할망은 조천에서부터 다리를 놓기 시작힛수다. 지주 사름들은 제주에 잇는 옷감을 거두어서 옷을 지엇는디 겨우 설문대 할망으 잠뱅이밖에 못 만들엇수다. 그래서 설문대 할망은 다리 놓기를 그만두엇다고 합니다. 설문대 할망이 다리를 놓는데 朝天 앞바당에 소낭구를 동을 깔엇는데 그 소낭구가 지금도 가끔 떠오른다고 합니다.

③설문대할망은 바당물이 얼마나 짚은가 알어보것다고 여기저기 들어가 봤다고 합니다. 목안에 잇는 용소에 들어간 보난 물이 할망의 발등밖에 안차 서리에 잇는 홍리물에 들어간 보난 무릎에 꺼지 닿지 않고 한라산에 잇는 물장오리가 짚다고 해서 거그 들어가 봣더니 그만 그 물장오리에 빠저서 죽엇다고 합니다[34].

(바)는 제주도 선문대할망 설화의 일부이다.

(바)-①은 설문대할망이 한라산에 걸터앉아 한 발은 우섬에 딛고, 다른 한 발은 범섬에 딛고서 팡돌을 삼아 빨래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다. 이 모습은 선문대할망의 키가 얼마나 큰 거구인지를 말해주는 내용인데, 거기에 더하여 빨랫돌을 삼아서 빨래하는 모습까지 연출하고 있다. 선문대할망이 한라산에 걸터앉

〈그림 5 말레이시아 사원에 그려진 빨래하는 마고의 모습〉

34) 임석재, 『임석재전집9-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4, 277~279쪽.

은 모습은 중국 보타산에서 관음보살이 산을 뛰어다니가 힘들면 산봉오리에 걸터앉아 있는 모습과 하등 다를 게 없다. 그런데 선문대할망이 빨래하는 모습은 마고가 빨래하는 모습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 제주도의 선문대할망은 관음보살과 마고가 결합되는 전제가 나타난다.

(바)-②는 선문대할망이 키가 커서 옷을 해 입지 못하니 제주사람들에게 옷 한 벌을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매우 인간적이고 서민생활과 함께하는 선문대할망이지 영험한 신격은 보이지 않는다. 제주사람들이 옷감을 거둬 옷을 만들었지만, 겨우 선문대할망의 잠뱅이밖에 만들지 못하자 다리놓기를 포기하고 있다. 이 내용은 베를 짜거나 옷을 만드는 織造의 女神 西王母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바)-③는 선문대할망이 바닷물의 깊이를 알아보고자 바다를 걸어다니는데 용소에 들어가도 발등을 넘실거릴 정도이고, 깊은 곳에 들어가더라도 바닷물이 겨우 무릎에 찰 정도이니, 거구의 장신을 과시하다가 물을 빠져죽는다는 이야기이다. 키가 커서 바다를 돌아다니며 해난에 처한 어부들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는 선문대할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는 선문대할망이 거구의 장신으로서 한라산에 걸터앉거나 바다를 돌아다니거나 옷을 해 입을 수 없는 내용으로 묘사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 여성의 신격이 복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첫째, 할미신이 할망으로 표현되었다. 제주도 한라산에 걸터앉아 있는 선문대할망은 관음보살의 화신으로 보아야 한다. (바)에서 설문대할망은 전형적으로 중국 주산군도 보타산에 상주하는 관음보살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라)에서 바닷가 숲에 거주하면서 중생을 구제하는 할머니가 관음보살의 화신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문대할망도 보타산의 할머니와 동일한 계통으로 보아야 한다. 보타산에서는 노파가 키가 큰 것이 아니라 999개의 산을 뛰어다니던 관음보살이 거구였고,

할머니는 구도하는 수행자들을 돕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은 중생구제보다 항해를 돕는 거구의 해신으로 강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보타산에서 관음보살과 할미신이 조합된 해신이 제주도로 건너온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마고가 빨래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마고는 신선녀인데, 인간세계로 내려와 서민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빨래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주도에 선마고가 서해를 건너와 제주도 한라산에서 놀았다는 마고전설이 있다.[35] 이 마고전설은 고려말 조선초에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해상들이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 崔溥의 耽羅詩에는 한라산의 산신은 마고였다. 마고는 항상 낭랑 18세의 젊은 여인이다. 이 처녀가 제주도 한라산의 神仙女였는데,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서 마고할미로 등장하고 있다. 1771년 張漢喆의 『漂海錄』에도 선문대할망은 詵麻姑로 표현되었지만,[36] 그 후로 마고의 명칭이 다양하게 바뀐다. 설화상 우리나라에서 마고할미가 등장하는 시점은 18세기 이후다.[37] 오랜 세월동안 마고선녀가 마고할미로 늙어버린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마고의 신상 변화는 중국에서 明代의 마고선녀가 淸代에 마고할미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직조의 여신 서왕모가 선문대할망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 서북부 지역에서 서왕모는 직조의 여신으로 숭배되어 온다.[38] 그런데 선문대할망이 織造의 神으로 묘사된 것은 마고 때문이다. 마고할미 설화

35) 김순자, 「'선문대할망'의 異稱들」『설문대 할망과 바다』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36) 김순자, 앞의 논문 참조.

37) 송화섭, 「한국의 마고할미 연구」『역사민속학』28집,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38) 김선자, 『중국 신화 이야기2』 2004. 98쪽.

에 마고가 베틀에 앉아서 베 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키가 워낙 커서 짜본들 겨우 잠뱅이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실상 마고설화에서 베 짜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 서왕모 이야기와 마고 설화가 조합되면서 베 짜는 마고할미가 된 것이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서왕모와 마고를 동일한 인물로 인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둘다 아름다운 천상의 여인이라는 점과 늙지 않고 죽지 않는 不死藥을 가진 신선녀라는 점 때문이다. 서왕모가 신선세계의 蟠桃會를 열면 마고가 반드시 참가하는데서[39] 서왕모와 마고를 혼동하지만 본래는 서로 다르다. 서왕모와 마고가 조합된 여신이 淸代에 한반도로 건너오면서 마고할미 설화에 반영된 것이다.

제주도의 선문대할망은 천상의 神도 아니고 神仙도 아니고 마치 이웃집의 할머니처럼 인간적이고 매우 친근한 모습을 보여준다. 선문대할망은 키가 크고 몸집이 큰 한라산 산신임에도 존엄하고 신비스러운 창조신이라기보다는 키가 커 옷을 맞춰 입을 수 없으니 제주사람들에게 옷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만든 옷이 짧으니 놓겠다던 다리를 놓다가 그만두는 앙탈부리는 모습은 신이라기보다는 심술을 좋아하는 이웃집 할머니의 모습이다. 선문대할망의 모습은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제주도민들에게 전승되는 신의 이야기이지만, 이야기의 단락 구조를 살펴보면, 중국 唐代의 관음화신설화에서 明淸代의 마고, 서왕모 설화까지 다양한 신격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시대에 중국 절강성 명주항과 주산군도 보타산에서 출항하는 상선이 제주 항로를 통과하여 일본 후쿠오까 하카타항으로 항해할 때에 제주도 서귀포가 중간

39) 김선자, 앞의 책, 107쪽.

기항지로서 정박하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고, 제주의 해상들이 명주, 천주, 광주를 오가면서 보타낙가산 계통의 해양 신앙과 설화를 유포하면서 선문대할망설화가 제주도에 뿌리 내리게 되었다고 본다. 마고가 삼청산의 산신이고, 서왕모가 곤륜산의 산신인데, 두 여신이 해신으로 등장하는 곳도 보타낙가산이다. 이러한 여신들이 관음보살의 화신인 할미신과 결합하여 보타낙가산에서 바닷길따라 제주도로 건너왔다고 본다. 선문대할망은 선마고와 할미가 조합된 여신인데, 선마고는 서왕모와 마고가 조합된 산신의 신격이고, 할망은 관음보살이 할미로 화신한 해신의 신격을 가졌으나 두 신격이 조합된 것이다. 따라서 선문대할망의 신격은 절강성의 보타낙가산 계통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구전설화에 등장하는 선문대할망은 오름을 만들고 한라산에 걸터앉은 거구의 여신으로 창세신화의 주인공으로 회자되어 왔는데, 선문대할망 설화를 분석해보면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다양한 신격들이 조합된 山神과 海神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선문대할망은 인도 포탈락카 지역의 백의관음보살이 인도차이나 해역의 해상항로를 타고 올라와 중국 강남지역의 명주, 주산군도 보타산에 당도한 뒤 白衣觀音菩薩이 할미신으로 화신한 해신과 중국 도교의 여신인 마고와 서왕모가 조합된 산신이 결합하여 제주도로 건너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주도의 선문대할망 설화에서도 詵麻姑가 걸어서 서해를 건너와 한라산에서 놀았다(詵麻姑步涉西海而來遊漢拏云)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선마고는 어디에서 서해를 건너 온 것일까. 선마고는 절강성 보타낙가산에서 남로를 이용하여 제주도로 건너왔다고 본다. 처음 선마고가 낭낭 18세의 마고는 아니었을 것이며, 서해를 걸어서 건너올 정도라면 키가 커야 하기에 보타산의 백의관음보살의 화신인 할미신과 중국의 서왕모, 마고가 조합된 선마고였고, 제주사람들은 후대에 이 선마고를 선문대할

망이라고 부른 것이다.

지금까지 선문대할망 설화는 제주도의 창세신화, 창조신화라는 관점에서 선문대할망을 창세신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런데 선문대할망 설화는 제주도의 창세신화라기보다는 중국 보타낙가산에서 불교의 관음신앙과 도교의 신선신앙이 결합하여 제주도에 건너온 해신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Ⅵ. 맺음말

지금까지 제주도의 영등할망과 선문대할망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상항로와 해양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실상을 접근 방식으로 제주도가 가진 지리, 지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육지의 영향보다도 쿠로시오해류권에 속한 섬이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제주문화를 이해하는데, 선문대할망을 제주도의 창조신화로 보거나 제주도의 돌하르방과 말목장을 몽골과 연결짓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쿠로시오 해류다. 쿠로시오 해류는 북적도해류다. 이 해류는 적도에서 북상하여 공해상에서 필리핀과 오끼나와를 거쳐 곧바로 제주도에 상륙하기도 하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연안항로를 거쳐 중국 강남지역에 이르고 강남의 명주항, 주산군도의 보타도에서 한반도로 건너오는 남단 횡단항로를 거쳐 제주도에 이르는 해양실크로드가 일찍부터 열려있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쿠로시오의 해상 기류와 항로를 통해서 오랜 세월동안 자연스럽게 남방계 인도차이나 문화와 중국 강남의 해양문화가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주도의 설문대할망과 영등할망도 인도차이나와 중국 강남지방에서 해상항로를 통해서 전파해온 설화와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 최근 영등신과 오끼나와 해신과 비교하는 연구[40]가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등할망 설화는 관음이 영등대왕으로 화신하여 종종 표류하는 고기잡이배들을 구원해주는 해신이야기인데, 항해하는데 관음보살을 찾아 해난을 극복하라는 교훈적인 설화이다. 영등대왕의 산다는 강남천자국 외눈배기섬은 동아시아 최대의 관음성지인 보타낙가산으로 추정된다. 제주도와 보타낙가산 사이에 해상항로가 열려 있기에 보타낙가산 계통의 해양문화가 제주도에 쉽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본다. 선문대할망이 그러한 사실을 실증해주고 있다. 선문대할망은 보타낙가산에 상주하는 관음보살이 할머니로 화신한 해신과 중국의 신선인 마고와 서왕모가 조합된 산신이 결합하여 서해를 건너와 제주도 한라산에 좌정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문대할망의 옛 기록이 입증해주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의 법화사는 고려시대 해상교통의 중간기항지로서 중국과 일본을 오가는 선박들이 항해안전을 기원하는 관음도량이었던 곳이다. 표해록을 쓴 최부가 표류하여 중국 명주 일대에 당도한 것처럼, 중국 명주항 및 보타낙가산에서 출항하는 배는 제주도를 경유하거나 물표로 활용하여 규슈 북부 후쿠오카 하카다항까지 연결된 남로를 타고 항해하였던 것이다. 명주항(또는 보타낙가산)에서 하카다항까지 연결된 남로를 따라 영등할망과 선문대할망이 건너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영등할망 설화에는 관음보살과 아귀의 나찰 등 불교적인 요소가 강하게 들어 있는 반면, 선문대할망 설화는 관음보살의 화신인 할머니와 서왕

40) 좌혜경, 『한국 · 제주 · 오끼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세상, 2000, 364쪽.

모와 마고가 조합된 도교의 여신이 결합한 할미신이다. 보타낙가산의 할머니와 제주도의 선문대할망의 차이라면 같은 거구의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타산할머니는 수행자와 구도자에게 밥과 반찬을 갖다주는 선행이 보이지만, 제주도 선문대할망은 그러한 선행보다는 심술부리고 서민적인 이웃집 할머니 모습이다.

영등할망 설화는 표류하거나 항해자들에게 관음보살을 외우게 하여 항해도중 풍랑의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적인 면이 강조된 반면, 설문대할망은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주변 해역을 돌아다니며 항해하는 선박이 해난을 당하지 않도록 구제해주는 거구의 해신이다.

## 참고문헌

『法華經』

『觀無量壽經』

『大唐西域記』

崔溥, 『漂海錄』

張漢喆, 『漂海錄』

玄奘法師, 『大唐西域記』 卷 第 十, 秣羅矩吒國

임석재, 『임석재전집9-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4.

黃有福 陳景富, 『韓 · 中 佛敎文化交流史』, 까치, 1995.

안넬리제+페터카일아우어, 『힌두교의 그림언어』, 전재성 옮김, 동문선, 2008.

김선자, 『중국신화 이야기2』, 아카넷, 2004.

좌혜경, 『한국 · 제주 · 오끼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세상, 2000.

강희정, 『중국관음보살상연구』, 민음사, 2004.

윤명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윤명철, 『장보고시대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2002

미야지아키라, 『인도미술사』, 김향순 · 고정은 역, 다홀미디어, 2006.

정수일, 『한국속의 세계』, 창비, 2005.

이영재,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운주사, 2004.

朱封鰲, 『普陀山觀音文化勝跡遊訪』, 宗敎文化出版社, 2002.

林士民, 「동아시아 해역항로에 관한 연구」 『고대 동아시아의 바닷길』, 목포해양문화재연구소, 2009.

류경희, 「힌두교와 동남아의 종교문화」 『동남아 인도문화와 인도인사회』, 외국어대 출판부, 2001.

송화섭, 「한 · 중 관음화신설화 연구-노구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30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9.

송화섭, 「한국 마고할미 연구」 『역사민속학』28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8.

송화섭, 「부안 죽막동 수성당의 개양할미 고찰」 『민속학연구』22호, 국립민속박물

관, 2008.

송화섭,「관음의 바닷길과 한반도 서남해안의 관음상」『해양문화학학술대회자료집 2』,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09.

허남춘・강소전,「해양과 바람의 민속학적 접근」『해양문화학』학술대회자료집2,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9.

김순자,「'선문대 할망'의 異稱들」『선문대할망과 바다』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10.

曲金良,「中國 舟山群島 嵊泗縣의 祠廟와 海洋信仰」『島嶼文化』 제26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5.

레이첼카슨,『우리를 둘러싼 바다』, 이충호 역, 양철북, 2005.

DK『바다』편집위원회,『바다』, 사이언스북스, 2008.

정운경,『탐라문견록, 바다밖의 넓은세상』, 정민 옮김, 휴머니스트.

大林太良 外,『黑潮の道』海と列島文化 제7권.

**Abstract**

## Ocean Belief in East Asia and Youngdung Halmang and Seonmundae Halmang in Jeju Island

Song, Hwa-Seob*

Korean Peninsula and Jeju island a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Kuroshio Current which is a strong western boundary current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Ocean and in East Asia. The Kuroshio Current begins off the equators in East Asia and flows northeastward past Indochina, Okinawa, Japan and the south of Korean Peninsula and merges with the North Pacific Current which shows the North Pacific Current circulates clock wise.

The Kuroshio Current along the North Pacific Current spreads East Asian culture and provided navigators and people adrift on the sea with a way to go to Korean Peninsula and Jeju island which means that the Kuroshio Current was an ocean silk road in East Asia. Indian religion and Ocean belief of Indochina came to Korean Peninsula along the Indochina coast. The Indian religion was Esoteric Buddhism which was a mixture of Hinduism and Buddhism. Buddhism mainly on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of Esoteric Buddhism spreaded widely around the Indochina coast as Ocean belief.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who took care of the Ocean came northeastward to Botanackgasan in Jusangundo, China. Jusangundo in Zhejiang is the biggest sacred place for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 Jeonju univ.professor

and it influenced Korean Peninsula.

It came to Byunsan through Sadan sea route or to Jeju island through South Sea sea route. There was frequent Sea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re was a temple named Byuphwasa in Seogwipo in Jeju island in the early Song dynasty. Seogwipo played a role as a middle port for the Sea trade and Byuphwasa was the sacred place praying for the safety of sailing.

Youngdung Halmang and Seonmundae Halmang are embodiments of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They came to Jeju island during Corea dynasty and became folk religion and were embodied into Youngdung Halmang and Seonmundae Halmang, which shows that the origin of the embodiments is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came from India through Chnia.

**Key Words**

North Pacific, Buddhism mainly on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Botanackgasan, Esoteric Buddhism, Ocean belief, Jeju island.

**교신 : 송화섭** 560-86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E-mail : histo55@jj.ac.kr 전화 : 010-6777-2829)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8. 05.
게재확정일 2010. 08. 10.